



고민 있으세요?...지금 전화 하세요

"자비의 전화 15주년 화이팅" 전화 속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로 불리는 '자비의 전화' 베테랑 상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막막하게 느껴지고 고
통스러운 상황 때문에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
당신은 누구를 찾아가?

15년이라는 시간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고
통과 슬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
어온 곳이 있다. 전화만큼이나 가까운 곳에
서 자비의 손길을 뻗치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 바로 '자비의 전화(02)737-7374-6)' 상담봉사자들이다.

12월5일 밤11시

"때르릉 때르릉."
바람이 심하게 불던 12월 5일 밤 11시쯤
전화벨 소리가 두 평 남짓한 상담 부스에
울려 퍼졌다. "네, 자비의 전화입니다." 상담
원 이석진 씨가 전화를 받아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 죽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수면제 30
알을 준비해놨어요. 전화를 끊는 대로 다
먹고 죽을 생각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게 마지막 전화라
고 생각해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저한테 상황을 말씀
해보세요. 선생님님이 죽으면 얼마나 주변 사
람들이 상심할지 떠올려주세요." 이씨의
절박한 호소 끝에 마음이 움직인 상담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라 했
다. 너무 힘들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생

각뿐이지만, 두 아이들이 자신의 전철을 밟
게 될까봐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고
했다. 통화는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다. 안
정을 되찾은 상담자가 전화를 끊은 것은 새
벽 3시였다. 이씨는 "인간은 살다보면 알파
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언제 꼭
한번 불교상담개발원을 방문해서 전문면
접상담도 받아보세요"라며 상담을 마쳤다.

1990년 불교계 최초의 전화상담 봉사기
관으로 출범한 자비의 전화가 15년간 받은
전화는 5만여 건을 넘는다. 미주와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전화가 오기도 한다.

자비의 전화를 거쳐 간 봉사교육자 천
여 명, 상담원은 400여명에 이른다. 현재 핵
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80명의 상담원들
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중 6일을 꼬박 전화
선에 매달리며 항상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영자(1기 상담원) 씨는 "상담전화는 시
대를 반영해요. 전화를 통해 계절을 느끼
고, 또 세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라고 말했다. IMF한파가 몰아쳤던 1998년
에는 가장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통화를 했
고, 입시철에는 수험생들의 걱정과 괴로움
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한창 인신매매가 횡
행하던 90년대, 여성들을 납치해 유흥가에

개통 15년 '자비의 전화' 24시

1990년 출범 전문가 180명...5만건 상담
전화 항상 열어두고 4교대 '무보수 근무'
1년간 120시간 교육받아야 자격 갖춰
상담받은 사람이 찾아와 봉사하기도

넘겨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던 인신매매
이 괴로움을 못 이기고 '조직에서 탈출하
고 싶다'며 전화를 한 일도 있었다.
상담은 또 끝없는 수행의 길이기도 하다.
내담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결
국 자신이 보는 한계 속에서 상담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자비의 전화 상담원
중에는 상담봉사 시작 후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상담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도 많다.
상담원들은 무보수로 자비의 전화 상담을
하지만, 어느 곳보다 치열하게 자기정진을
하고 있다. 하루 4교대, 오전 9시부터 오후 9

시까지 4시간씩이다. 밤근무는 오후 9시부
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다.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1년간 총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
정과 30시간의 수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현장에 갓 투입된 새내기 상담원들
은 때로 상담과정에서 진퇴양난에 빠지
기도 한다. 그럴 때는 선배 상담원들에게 '멘
토링'을 부탁한다.
12월6일 오후 1시
6일, 오전 상담이 끝난 오후 1시, 한 상담
원이 커피잔을 손에 쥐고 15년동안 상담해
온 김동수(장립구 상담원) 씨에게 '고민



자비의 전화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상담"을 신청해왔다. 상담전화를 '음란전
화방'인양 악용하는 일부 익명전화 때문에
연달아 끊어주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들도 도움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니 그 사람의 입장
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끌어보려"고 충고했다.
상담원 활동은 2년이 고비다.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상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을 견디지 못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그
만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을 계속하는 이들이 느끼는
보람은 무엇보다도 값진다. 한 때 환각증세
까지 보이던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던 내

담자가 완전히 치료돼 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가정의 화목을 되찾은 내
담자들이 편지와 가족사진을 보내올 때면
상담원들은 두근두근 이야기 꽃을 피운다.

7년간 상담부장을 맡았던 장립구 박희
섭 씨는 "상담을 통해 삶의 가치를 느끼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복막투석으로 8년간 병석에 누워있던 막
내팍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에도 박씨에게 힘을 주었던 건 자비의 전화
였다. 당장 딸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괴로
워하는데 내가 딸 걱정 하나 해결하지 못하
고 무슨 상담을 하나 싶어 미안하고 가슴
아팠다. 그러나 마침내 딸이 어머니 말을
받아들여 모든걸 수용하고 편안한 마음으
로 눈을 감았을 때, 박씨는 "갖지 못한걸 얻
으려 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삶을 감사
하게" 살도록 가르쳐준 '자비의 전화'를 떠
올렸다. 딸을 떠나보낸 뒤로도, 박씨는 예
전보다 더한 활력으로 오늘도 외로움의 망
망대대에서 손을 뻗치는 내담자들에게 자
비의 등불을 밝힌다.

24시간 불이 꺼지지않는 '자비의 전화'
부스. 부스에 들어간 천수천안의 보살이
되는 상담자들은 늘 '무언의 말'을 한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 간절
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이은비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실용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천수경 12매·반야심경 8매

복상불호소영
장량신장가
의식사용용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래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책(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악들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동이 70~80°C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른 곳에다 부담없이 편안하게 얹어만 있어도 정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이뱃배가 냉하는 분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다양한 안락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양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장영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